

문화광장



이 나 연
독립큐레이터·미술평론가

미술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생태계란 특정 영역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생태계란 단어가 자연을 넘어서 사용되면 스타트업, 문화, 미술생태계처럼 각 분야로 나뉘어 표현되곤 한다. 생태계와 잘 어울리는 형용사는 다시 지속가능, 활성화, 회복 혹은 조성이다. 지금 제주도의 미술생태계와 적합한 표현이라면 조성과 활성화가 될 것 같다. 제주도의 미술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해볼지도 한다. 제주에선 제대로 작동하는 미술생태계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

문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순환되려면 생산-유통-소비-생산의 체인이 착착 굴러가야 한다. 제주에선 일단 예술품의 생산은 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포럼 등의 공공관에서 창작지원금이 넉넉하게 지원되는 편이고, 수도권에 비해 경쟁률도 높지 않다. 각종 전시와 미술관련 행사, 작품 창작을 위한 비용은 세금에서 시작된다. 유통과 소비로 넘어가면 이제 제주도의 미술생태계는 길을 잃는다. 개별 작가의 작업실에서 제작된 창작품은 갤러리나 미술관, 대안적 공간 등을 통해 발표되고, 이 창작품은 다음 전시로 이어지거나 드물게는 컬렉터를 만나 판매 돼야 한다. 그런데 이 중간 유통과정을 맡아서 진행해줄 중간거래자, 다른 말로 화상 혹은 갤러리스트가 부재한 것이다. 갤러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갤러리스트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작

가를 소개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경로는 갤러리 외로, 아트페어나 경매 등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화상의 부재 이유로 돌아와 보자면 제주엔 결국 소비자, 즉 컬렉터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소비자가 없으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생기지 않고, 시장이 없으면 보통 생산을 멈추게 된다. 여기서 다시 문제, 예술의 특성상 소비자를 찾기 못한 채로도 생산은 왕성히 일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다. 환금화되지 않는 노동에 대한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환금화되기 어려운 예술품을 돈으로 바꾸는 갤러리스트의 역할은 소비자가 없는 제주 실정에선 연구술사에 가깝다. 돈을 금으로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미술시장은 보통 1차(primary) 시장과 2차(secondary) 시장으로 나뉜다. 1차 시장은 갤러리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작가의 신작을 전시를 통해 소개하며 최초로 거래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한다. 2차 시장은 이미 최초 거래가 이뤄진 작품을 재거래하는 경매를 주로 말하고, 때로 갤러리나 아트페어를 통해서 이뤄지기도 한다. 경매와 아트페어에서도 전시의 기능과 신작을 최초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2차 시장은 서로 유연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술생태계를 위해서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모두 중요하다. 제주에선 대안적 아트페어나 미술 행사들이 시장 조성의 시작단계에 있다. 초기부터 건강한 미술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 갤러리스트와 컬렉터를 길러내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길 기대한다.

열린마당

렌터카 탔만? 교통질서 본보기 필요한 때



김 동 현
성산을 주차문화개선추진위원장

기분에 그런 거 같다고 한마디 덧붙인다. 누구나 감정이 있어서 과속주행과 난폭운전으로 추월해 가는 차량을 볼 때마다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는 나만 바보가 된 듯하고 짜증이 올라오게 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렌터카 탔만 하고 있어야 되나 싶다. 우리가 모르게 운전대를 잡으면 급해지고 난폭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제주도민들이 먼저 시작하는 교통질서 본보이기를 통해 렌트 차량 운전자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면 안 될까 생각해 본다. 추월과 주행 차로 분류 운행을 권고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보는 조그마한 변화부터 시작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든 좋겠다. 질서 속에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제주지역만의 교통문화, 언제라도 상쾌한 마음으로 활짝 트인 도로를 달려갈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왜 원 지사만 대선 도전 안 되나”

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차기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 치열한 공방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도당위원장에게 이어 민주당 도의회 의원들까지 나서 원 지사의 대선 도전 자체를 비판한 것과 관련 “원 지사의 대선 성공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속 좁은 행태”라고 비판. 이어 “다른 시·도지사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선 도전을 해도 되는데 왜 유독 제주도지사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 오은지기자

제주 드라이브 잇쇼 개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제주 경기 회복을 위해 제주의 식재료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드라이브 스루 행사가 마련 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사는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2020 제주 드라이브 잇쇼’ 행사를 개최.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의 특별한 먹거리를 모아 방문객의 입과 눈을 즐겁게 할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인. 김현석기자

일회용품 없이 일주일일...

○...에월음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에코생활(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캠페인을 진행해 관심. 캠페인은 일주일 동안 일회용품 없이 사는 체험형으로, 최근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26개 마을 부녀회장 등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 읍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추진 결과를 회신받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무심코 썼던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 인식 변화와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취지”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사설

호되게 비판받는 원 지사의 대권 행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권 도전 의사를 피력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새삼스런 뉴스가 아닙니다. 원 지사는 지난 7월 “아주 기초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옛그레는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 표명하자 도내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수감기관의 대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장 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울 대선 출마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자, 도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무책임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도내 정치권만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내

고 “우선 도민들에게 인정받고 설득하는 것이 예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는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중앙정치에 목을 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직 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박수칠 일이고, 반길 일이 아닙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데 그렇지 않으니 말입니다. 도내 정치권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까지도 마뜩잖게 여기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나락에 빠진 지역경제와 산적한 지역현안을 등한시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나랏일을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비판으로 들립니다. 온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도 쉽지 않은 일인데 대권 도전을 언급하자마자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대다수 도민들이 도지사직이냐, 대권이나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형 특별방역’ 가동... “방심은 금물”

코로나19 방역이 사회적 활동의 일부 완화에 책임을 전제로 한 ‘제주형 특별방역’ 체계로 19일부터 가동됐습니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추석명절 및 한글날 연휴에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를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한 특별방역 위험관리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지역은 추석연휴기간 28만여명, 한글날 연휴 10만여명 입도로 2주 동안 40만여명의 방문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없고, 타 지역으로부터 통보된 확진자 체류소식도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2일 59명 확진자 퇴원 이후 도내에서 입원 중인 확진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형 특별방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로감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자율성을 일부 부여하면서 방역 책임을 지우는 행정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를 경로당·사회복지시설·실내 공공체육시설 제한 운영

재개, 게스트하우스 3인 이상 파티 금지가 10인 이상으로 바뀌고, 종교시설 소모임 방역수칙 의무화(식사제공은 불가) 등이 시행됩니다. 이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방역은 도민 스스로 일상생활 속 예방과 방역을 늘 일상화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객이 주는 관광객에 의한 소리없는 감염 우려에 늘 노출돼 있고, 시기적으로 독감 유행과 겹치는 상황인 ‘트윈 데믹’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민 각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지킨다는 자세로 마스크 쓰기 등 습관적인 손세척 같은 생활속 방역에 여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다중 집합·모임·행사 등을 자제하는 방역수칙 준수도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모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제로’를 맞은 지역사회 ‘회생’ 분위기가 한 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지게 해선 안 됩니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신마음 작물과 소통
제주먹고사리뿌리와등글레뿌리
750-2828
732-5552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 (가압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한라전설(주)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722-0992, 725-0993

감골모욕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모욕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010-2699-2355